

## 산청 양수 홍보관

### Visitor Center

김정희 / 건축사사무소 토반  
by Kim Joung-Hwoe

전화가 왔다.

어느 엔지니어링회사의 상무였다. 도서지방의 전력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내연발전소를 울릉도에 짓게 되는데 그 일을 수주하여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사택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수주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도움을 청한다고 했다. 소문에 워낙 까다로운 원발주처인지라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수주한 회사의 부서간 일의 협조가 예산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으나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나로서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택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직접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

먼저 20여년만에 군생활동기를 만났다. 어떤 일로 찾아왔느냐고 의아해 했다.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까다롭게 한다하니 내가 해도 그렇게 어렵게 할 건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했다. 순진하게도...

그 친구는 그 답에 앞서 별 특이 없는 일을 하려는 나를 말했다. 그리고 실무자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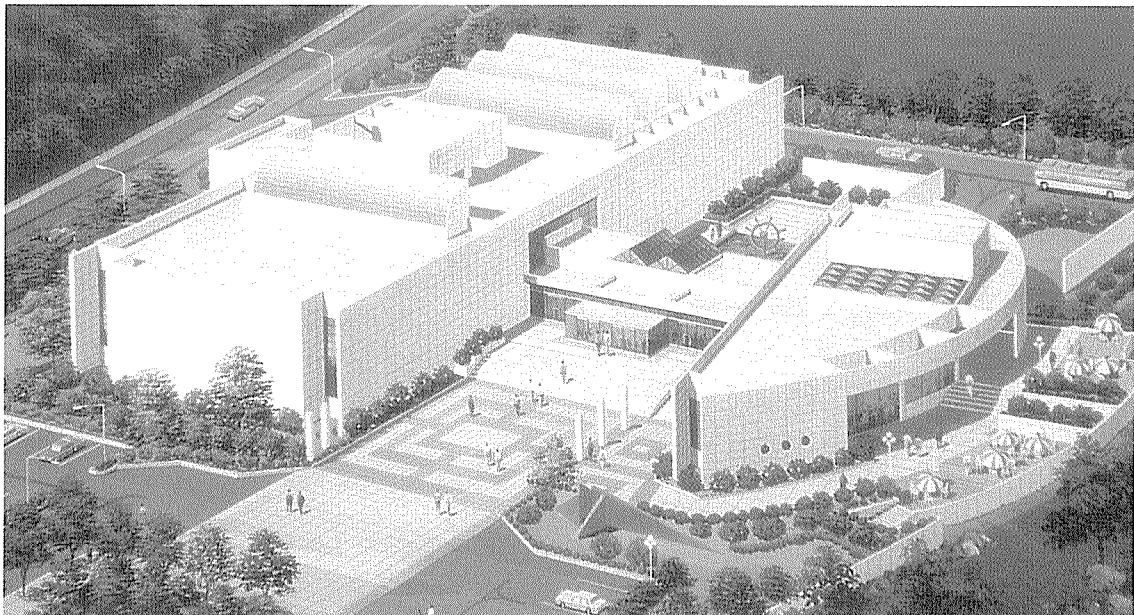
설계요구조건이며 일이 다급해진 경위며 잡다한 입장들을 이야기한 연후에 며칠까지 일을 끝내야 한다며 욕박질렀다. 일을 하겠다는 결심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간 입장에서 이렇게 황당한 꼴을 당하고 나니 화가 치밀었다.

“보시오, 지금 내가 온 것은 어떤 일인지, 일은 할만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것이지, 일을 한다고 했소?”

그네들도 황당해 했고 낭패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고 그냥 일어서기에는 ‘같이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지만 그렇게 난감해 하니 우선 어디까지 일을 하면 급한 불은 끄겠소?”

그래도 한 조직의 장으로서, 같은 건축인으로서 그냥 나오기가 어려웠다. 정중한 거절은 이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택이 아닌 가설건물 이야기가 나왔다.



조감도

성의를 갖고 계속 지어질 사택의 패턴에 큰 획을 긋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워지는 것은 웬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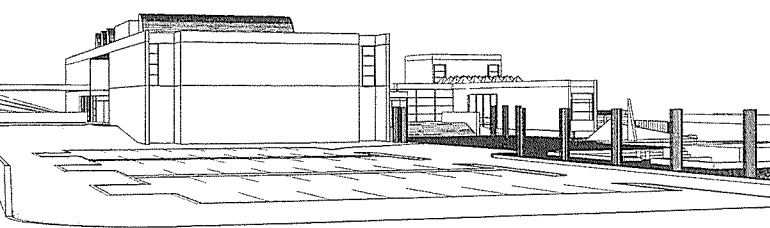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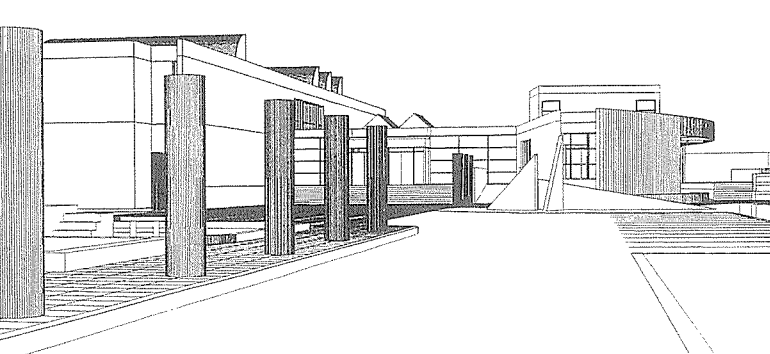
‘건축은 건축주보다 중요하다?’

그 이후로 이것이 인연이 되어 가끔씩 현상에 붙여진 일들의 연락이 있었고 그 동안 성의를 다하지 못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몇 번의 현상에 참여했다. 이 산청 양수발전소 홍보관도 현상에 붙여진 프로젝트였고 당선작 발표일을 한달여 연장하여 각축하다가 안타깝게 차석에 머문 계획안이다.

지리산을 오르는 길은 진주에서 중산리 방향으로 나 있고 계획부지와는 내대천을 사이에 두고 15m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여름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리산을 오르는 차들로 메워지는 도로라고 한다. 홍보관은 이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려다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게 되고 간혹 양수발전소를 방문할 경우도 가파른 그 진입도로를 돌아 올라가면서 발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건축은 대지위에 지어지는 것이고 그 대지의 특별한 해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축은 중심이 아니고 주변이라는 말도 있다. 어느 현상설계나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자연과의 친화적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주어진 기능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 대지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주변상황을 토대로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대지의 조건과 주변환경을 읽어내는 일은 여전히 설계의 첫 단계이면서도 자연과의 조화, 자연에의 순응이라는 문제 때문에 설계의 초입부터 어려운 화두가 되어 다가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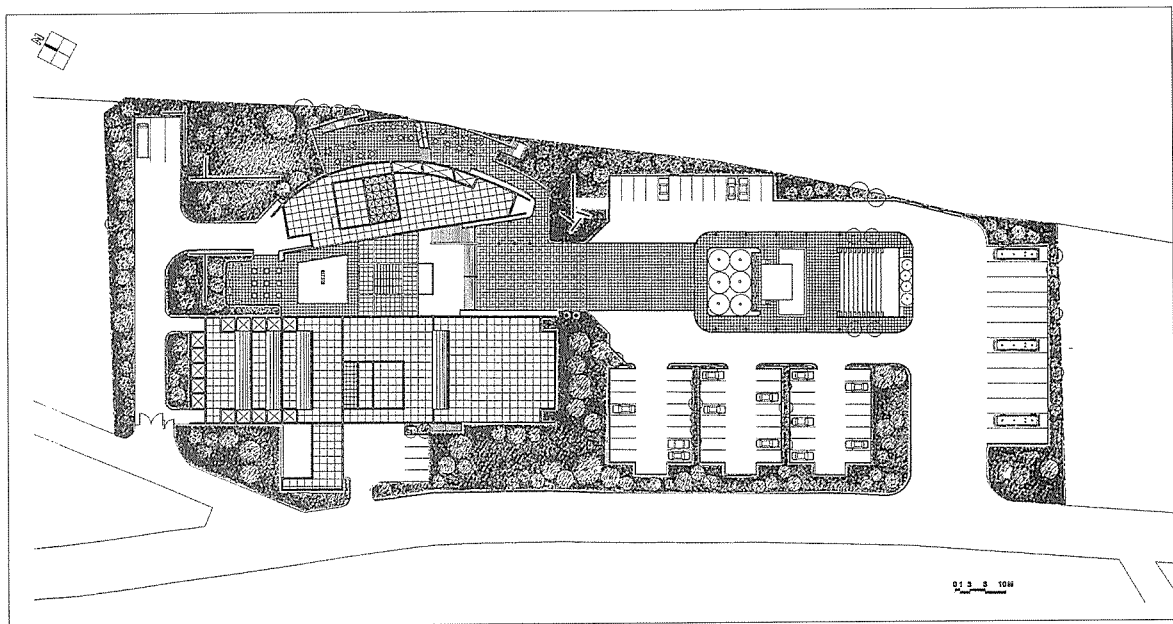
어떠한 생각, 정신, 철학으로 이 어려움에 답할 것인가? 디자인이라는 것이 감각의 깊이를 더하여 정신적 문제라는 생각



투시도

가설건물 정도야! 했는데...

그 이후로 만 1년동안을 12세대 사택 한 동과 가설건물 한 동을 설계하는데 소비했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실무진이 직접 찾아와 그 동안의 수고를 감사해 놀랐고 부서장도 만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했다. 엔지니어링 측에서도 별탈없이 마무리가 지어지는데 대한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우연한 경험이었었고 일종의 포기였으나 뜻하지 않았던 결과였다. 그래도 좀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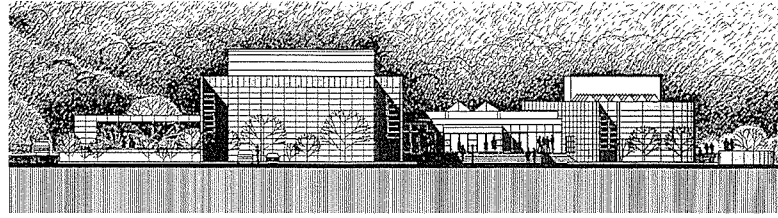
배치도

이 들때 방향하게 된다. 그러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은 그 일의 마감시간이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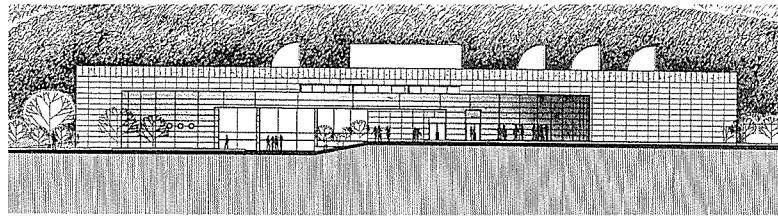
홍보관이란, 주목적이 홍보를 위한 시설이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를 원한다. 우연이건 목적을 가졌던 간에 방문자에게 그 원리와 목적, 경제성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비전문가에게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사업에 더욱 협조적이기를 기대하는 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방문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홍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홍보 Program이 유익해야 하고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홍보관의 설계는 먼저 홍보 Program의 수용에 적합해야 하고 홍보를 위한 홍보에 일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홍보 Program의 수용은 그 Program을 기능적으로 수용함은 물론이고 전시공간의 효율성, 가변성에 기본을 둔 풍요로운 공간감 및 동선상의 공간감에 있고 홍보를 위한 홍보는 그 건물의 인지도 및 부대시설의 유용성에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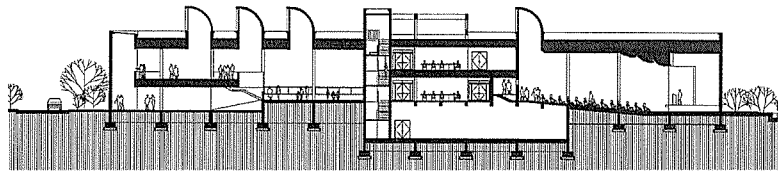
이 홍보관은 양수발전에 관한 대민홍보를 위한 건축물로서 전시홍보공간, 업무공간 및 서비스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전시홍보공간은 상시전시를 위한 공간과 집회 및 영상공간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홍보관 운영, 기획 및 유지관리, 통제의 업무공간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홍보관으로써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지리산 여행객들에게도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구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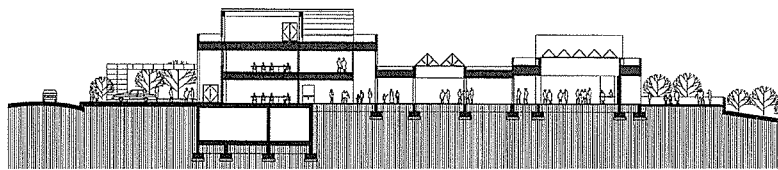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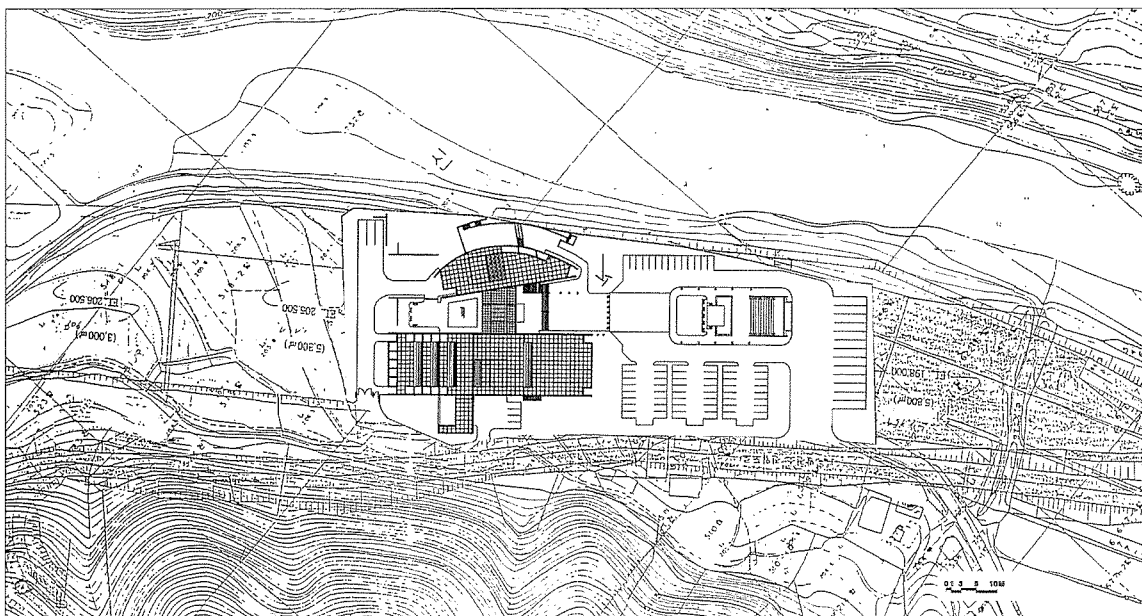
우측면도



주단면도



중단면도



배치도

계획건물의 Mass는 주공간인 전시실, 다목적 Hall 및 사무공간을 한 Mass에 묶고 휴식공간을 다른 덩어리로 하여 두 Mass로 분리하였고 그 사이로 주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홍보목적의 주공간에 대한 휴게공간의 위계를 높였으며 진입공간을 자연속에서 인위적 공간으로의 이전에 매개공간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지형의 Level차이를 반영하여 건물 바닥높이를 진입 Level보다 높게 하여 진입상의 공간의 변화를 느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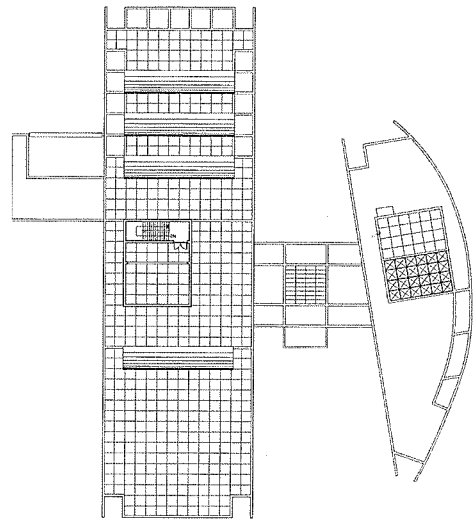
두 Mass는 진입축상에 평행하게 위치시키지 않음으로써 투시도적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였고 출입과정의 느낌에 또 다른 심리적 변화를 기대하였다. 두 Mass를 잇는 부분의 Lobby는 진입축상으로 전후를 개방하여 Lobby후면에 자연과 대치되는 지극히 인공적인 정원을 두고 그곳에 시각적 목표물을 두어 두 Mass사이의 이동간의 흥미를 더하도록 하였다.

전시실, 다목적 Hall 및 사무공간들은 2개층 높이의 상자로서 2개층 높이의 단일공간인 다목적 Hall과 부분 2층의 전시실 사이에 2개층의 사무공간을 두었고 Lobby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도로에서도 직접 사무공간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Lobby를 통한 다목적 Hall과 전시실의 출입은 사무실의 폭만큼 이격시켜 단일화했고 전시실은 간접조명으로 유리한 북쪽에 우선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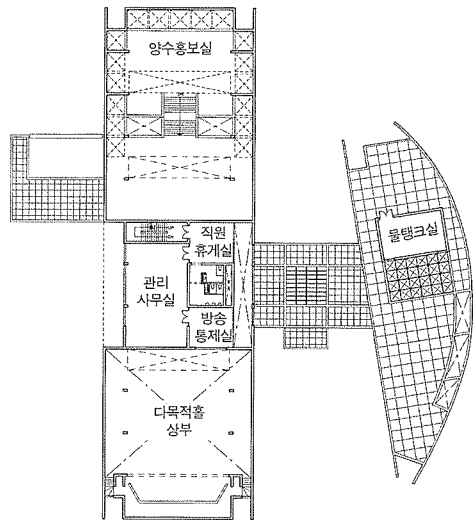
휴게기능의 동은 유형을 사용하여 형태적인 변화를 주었으며 내대천을 건너 지리산 진입로와 마주보고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물형태는 가급적 단순화시켜 주변상황, 즉 자연과 인공적인 것의 대립으로 인지성을 높이고 지리산 진입도로쪽으로 휴게기능을 배치하는 것, Solid한 Frame이 되어지는 홍보동에 Void한 입면을 갖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외부를 여름철에 옥외 휴식공간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력에 찬 느낌을 주었으며 성수기의 지리산 방문객을 유인토록 하였다. 물론 이 휴게기능은 내대천과의 연관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케 했다.

비록 깊은 골짜기 지리산 천왕봉 아래 내대천변에 위치하여 격리된 곳에 자리하고는 있지만 홍보관이 발전소에 인접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지리산 진입로 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이 곳을 '세인의 주목을 받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가 볼 만 한 곳, 지나다가 들러 볼 만한 가치를 가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홍보관의 효용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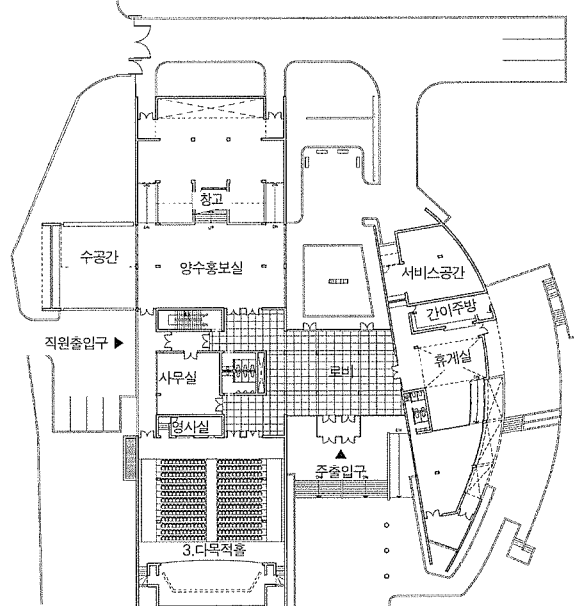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내놓고 발표하기란 그것이 계획안으로 머물고 있다하더라도 왠지 긴장된다. 그것은 다양한 잣대로서 그 건물을 평가할 다양한 눈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설계자는 다소간의 겸손과 아울러 뻔뻔스러움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 같다.



지층총평면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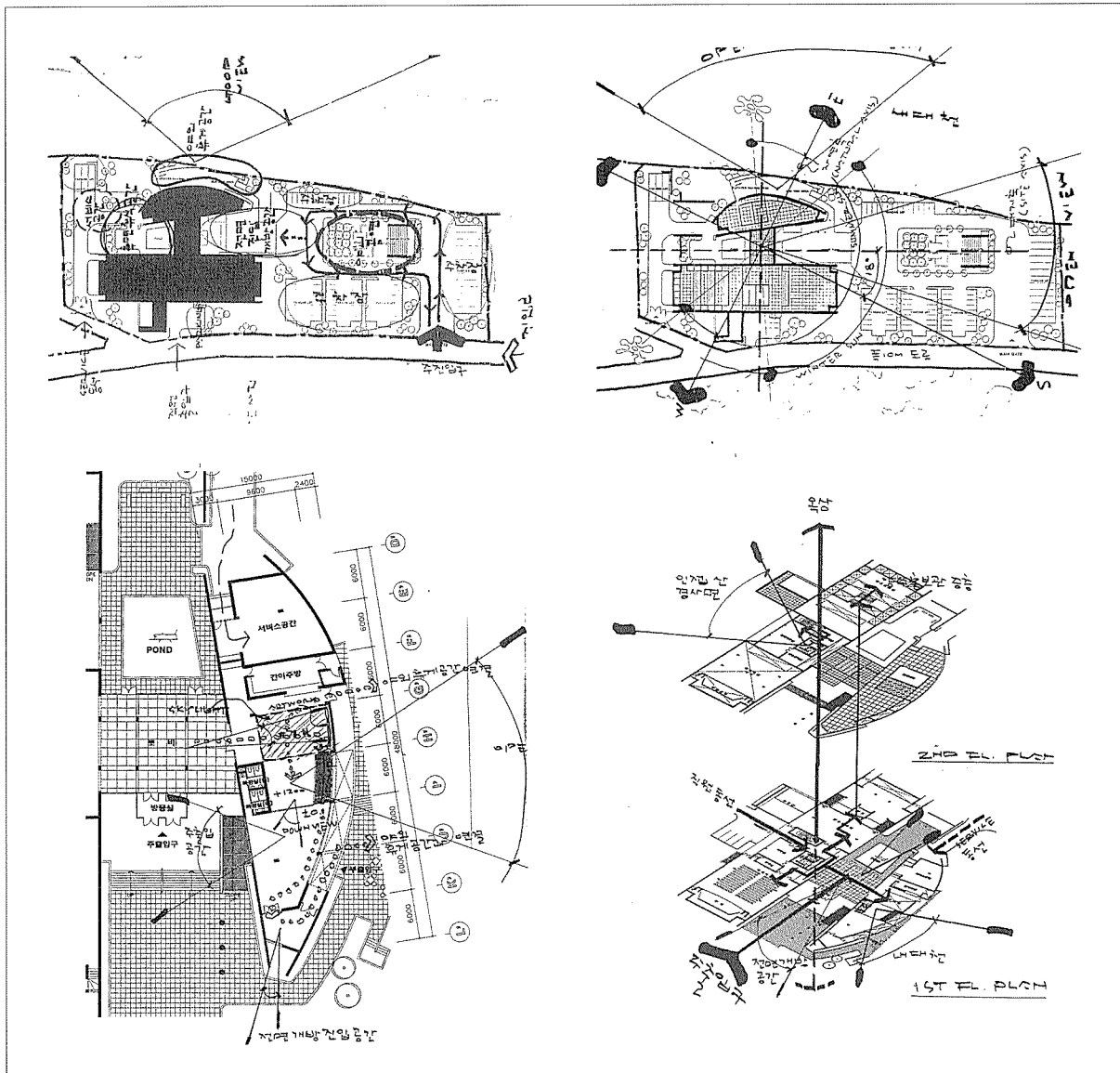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지위치	경남 산청군 사천면 신천리 518번지
지역지구	취락지역·준도시지역
주요용도	전시시설·관람집회시설
공사종별	신축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THK 30 화강석
대지면적	12,790.40㎡(3,869.09평)
건축면적	2,244.44㎡(678.94평)
연면적	2,525.00㎡(763.80평)
건폐율	17.50%
용적률	19.74%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설계담당	주상선, 배진호, 한영주, 구홍석



모형



스케치